

대학원 설계스튜디오를 통해 본 대안학교

Alternative Schools as Graduate School Design Projects

이 영 범*

Reigh, Young-Bum

1. 시작하는 글

한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모든 구성원의 삶과 가치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규제하던 컨베이어 벨트식 공간구조가 더 이상 인간 개인의 존재방식과 희망을 실현시키는 기체(Machine)로서 작용할 수 없게 되자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은 그들의 삶과 가치를 담아 줄 다양한 대안공간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순종과 소모적인 경쟁이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했던 학교공간은 새로운 가치에 부응하는 시대적 창의력과 협력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었고, 새로운 가치와 제도적 공간사이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체제 자체의 부적응 인간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다.

개별적인 주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사회가 요구하는 주체로서 훈육되길 강요하다보니 제도에 익숙하지 못한 개인들이 타자화된 주변부의 삶으로 전락하게 되고, 제도교육의 틀에서 이탈한 십대들의 학교와 수업에의 무관심은 결국 교실의 붕괴와 학교의 무의미를 야기하였다. 이데올로기로서 존재했던 학교란 제도공간에 대한 희망은 역설적이지만 학교 그 자체의 붕괴와 더불어 싹트기 시작했고, 그 싹이 바로 대안학교이다. 제도로서의 학교가 담아내지 못하는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삶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체험으로서의 대안학교들이 생겨나면서 십대의 교육에서 미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되었다.

소통적 의사체계로서의 디자인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실험으로서의 건축설계 프로젝트로서 지난 2001년 2학기에 경기대건축전문대학원에서 **미래의 희망을 건지는 대안학교**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통해 제도로서의 학교에 대한 해석과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는 대안학교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대학원 설계스튜디오의 소개

1) 설계스튜디오의 타이틀

미래의 희망을 건지는 대안학교

2) 설계스튜디오의 목적

이 프로젝트는 대학원 2학기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되는 '학교'와 '교육'이라는 이슈를 건축적 해안으로 살펴보고 사회적 공간화 작업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의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청소년', '교육' 과 '사회'를 바탕으로 하여 '도시속의 학교'라는 공간을 연구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과 색다른 표현방법에 따라 학교라는 공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설계스튜디오가 요구한 학교읽기와 대안공간으로서의 학교공간의 제안작업은 아래의 기준을 갖고 진행되었다.

* 정희원,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그림 1. 설계스튜디오 전시회 포스터

학교와 교육공간의 해석을 통한 벽과 벽돌의 디자인에서 시작하여 대안공간에 대한 자신의 시각적 틀과 그 시각을 통해 읽혀진 것들을 가공해 나갈 방법론적 틀을 정립하고, 학교에 대한 실체를 아주 미시적인 차원까지 파고들어 그 안에 담겨진 행위의 주체, 주체들간의 관계성, 그 관계를 담고 있는 물리적 환경, 그리고 그 환경내에서만 일어나는 행위들을 관찰하고, 학교공간과 그 안에 담겨진 행위와 행위의 주체들간의 관계성에서 내가 주목할 것을 명확히 설정하고 주목의 대상에 대한 조작의 방법을 탐구하며, 변형을 통해 내 것을 삽입할 수 있는 틈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내 것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적 장치를 주목하는 대상 안에 삽입하여 그 가능성을 열 것인지를 결정한 뒤, 제도학교라는 물리적 환경에 다시 학교라는 대안적 기능을 접속할 수 있는 틈새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5개의 서로 다른 대안학교가 접속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마련된 공간안에 담길 새로운 관계성을 다시 정립하고 그 관계성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장치의 디테일을 설계한다.

3) Project Program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현실공간으로서의 학교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가에 대한 워크샵으로서 개별적 체험공간으로서의 학교읽기를 1주간 진행하였다. 기억속의 학교읽기는 학생 개개인의 체험공간으로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데올로기적 교육공간의 관점에서 학교공간과 그 안에 담긴 개별적 교육체험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개별적 체험공간으로서의 학교읽기를 바탕으로 제도로서의 학교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 시각과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다큐멘터리형 공간으로서의 학교읽기를 핑크 프로이드의 「Another Bricks in the Wall」을 참고로 하여 벽과 벽돌'이란 테마로 6주간 프로젝트로서 진행하였고, 나머지 8주간은 다섯가지 작은 테마로 구분한 대안공간으로서의 대안학교의 제안에 초점에 맞추어 진행하였다.

01. One Week Project : 다큐스페이스 학교 (Docu -space School)
02. First Half Semester Project : 벽과 벽돌 (Another Bricks in the W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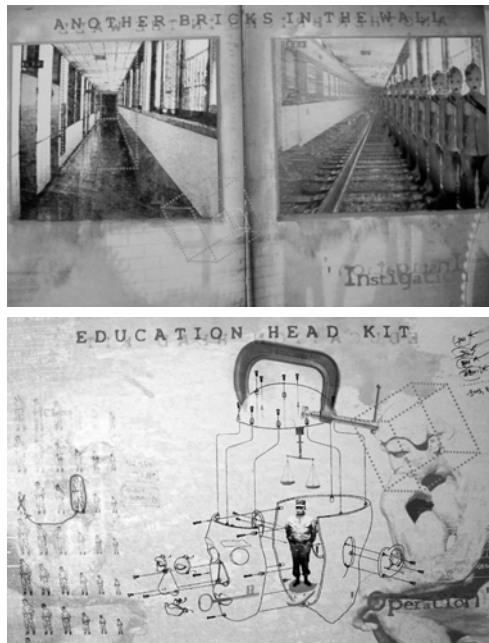


그림 2. 다큐스페이스로서의 학교읽기 스튜디오 작업



그림 3. 운동장 없는 도심 미니초등학교인 독립문초등학교의 중정마당과 운동회 광경

03. Second Half Semester Project : 대안스페이스 대안학교 (Alt-Space Alt-School)

- 대안학교01. 운동장없는 학교
- 대안학교02.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하는 학교
- 대안학교03. 움직이는 학교
- 대안학교04. 24시간 학교
- 대안학교05. 1인 학교



그림 4. 서울소년원인 교봉 정보통신 중고등학교의 외관 및 전경

4) Data & Information Search

학교입기를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와 정보수집은 학교를 구성하는 6가지 그룹별로 진행되었다. 교육내용에서는 학제와 교과편성, 그리고 대학입시의 문제를 다루었고, 물리적 시설로서의 학교공간에서는 교육이데올로기와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들여다 본 학교시설의 배치와 공간환경의 질서를 파악하였고, 학교를 구성하는 주구성요소로서의 선생님과 관련한 이슈를 정리하였다. 왕따와 학교폭력의 문제와 대학입시와 십대의 성과 같은 교육과 밀착된 사회적 이슈를 학생과 교육제도라는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한편, 학교 바깥공간에 존재하지만 학교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갖는 가정과 학부모를 통해 가정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01. 교육내용 (학제/교과편성/대학입시 등)
02. 물리적 시설로서의 학교공간 (도시환경포함)
03. 선생님 (참교육/전교조/춘지/체벌...)
04. 학생 (학교문화/교복/왕따/범생이/폭력/진로/십대의 성 등)
05. 교육제도 (교육부/교육정책/자립형사립고/입시/명문학교 등)
06. 가정과 학부모 (가정교육/학부모/사교육/조기교육/해외유학 등)

5) Tour Program

현실공간에 존재하는 제도로서의 학교와 대안공간으로서의 대안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답사역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초반부의 중요한 프로그램이었다. 답사프로그램은 주로 제도공간 학교에 대한 대안공간으로 자리한 다양한 형식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우선 도시변화에 따른 학교변화의 특징으로서 도심부의 지가상승과 교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운동장없는 소규모 도심미니학교와, 이와 대비되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가 한데 묶여 있는 도시속의 학교복합체



그림 5. 알란 파커의 영화 더 웰의 영상 이미지

에 대한 답사를 진행하였다. 탈학교 십대들의 도시속 대안학교로서 자리매김한 하자센터와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공간을 살펴보고, 청소년보호시설로서의 통제된 학교인 서울소년원을 답사하였다.

- 01. 운동장없는 학교 : 독립문 초등학교
- 02. 도시속의 학교복합체 : 배화여중고 및 배화여대
- 03. 탈학교 십대들의 도시속 대안학교 하자센터/수서 디딤돌 학교/도시속 작은 학교
- 04. 장애인 대안학교 밀알학교/선희학교/맹학교/유진학교
- 05. 통제된 학교 서울소년원(고봉정보통신고등학교)

6) Seminar Program

- 01.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
- 02. 서태지의 교실이데아'
- 03. Alan Parker의 음악영화 'Pink Floyd의 The Wall'
- 04. 토론의 쟁점 : 개인'과 집단', 자유방임'과 통제', 제 멋대로'와 제도', 유별나기'와 획일화', 저항'과 복종'으로서의 개념을 Bricks' vs. Wall' 의 틀에서 파악하기
- 05. 작업 : 학교를 매개로 생성된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 공간장치로서의 벽돌(Brick)과 벽(Wall) 디자인하기

일주일에 세 번 가능한 설계스튜디오 수업은 전반기에는 세미나 프로그램, 답사 프로그램, 설계 크리틱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전반기의 설계스튜디오가 제도로서의 학교공간 읽기와 해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학교공간을 다룬 다른 장르의 시선과 시각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문학과 영화, 그리고 음악분야에서 참고할 사례를 들여다 보았다.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은 무인도에 정착한 소년들의 심리와 행위를 권력화된 내부질서에 순응한 집단과 자유의지를 지닌 개인의 차원에서 다룬 노벨 문학상 수상작품이다.

한국가요계를 해체하면서 새로운 형식의 음악으로 십대들을 새로운 문화에 빠져들게 한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이데아' 역시 한국사회의 학교와 교육을 풍자한 지금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한 단면이었다.

됐어 이제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그 길로 죽해 이제 죽해/매일 아침 일곱시 삼십분까

지/우릴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막힌 꼭 막힌 모두가 막힌/널 그리곤 덩씩 우릴 먹어 삼킨/이 시꺼먼 교실에서만 내 젊음을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좀더 비싼 너로 만들어 주겠어/네 옆에 앉아 있는 그애보다 더/왜 바꾸지 않고 마음을 조이며 젊은 날을 헤메일까/왜 바꾸진 않고 남아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들어가며/고등학교를 지나 우릴 포장센터로 넘겨/이젠 생각 해봐 대학 본 얼굴은 가린채/근엄한 척할 시대가 지나 버린건/좀 더 솔직해봐 넌 알 수 있어"

영화 더 월(The Wall)'은 핑크 플로이드(Pink Floyd)의 앨범 [The Wall](79년)을 1982년 알란 파커 감독이 고도로 상징화된 이미지의 음악 영화로 재현한 것이다.

이 영화는 약물 중독으로 자살을 기도한 록 가수의 무의식을 따라가며 그를 억압하고 있는 전쟁, 학교, 어머니 등의 이미지를 핑크 프로이드의 음악과 교차시키고 있는데, 애니메이션과 뮤직 비디오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도입한 실험적인 형식과 체제 저항적인 내용으로 인해 국내에서 17년동안 상영되지는 못했다.

'Another Bricks In The Wall'이라는 섬뜻한 노래는 아이들을 똑같은 모양의 소시지로 빚어내는 공장과도 같은 학교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강박하는 어머니도, 섹스라는 탐욕스러운 꽃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애인도, 전체주의적인 군인들의 행진도, 모두 다 우리들의 자유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의 일부였던 것이다.

다양한 색깔을 갖는 벽돌 한 장 한 장으로서의 학생 개개인에 강요되는 교육프로그램은 학교라는 통제된 제도로서의 벽을 형성하고, 다시 제도로서의 학교라는 벽돌은 사회라는 커다란 벽을 쌓는데 사용된다. 벽은 단절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고, 나 자신과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며, 꿈과 이상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한다. 벽은 그렇게 두 공간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다. 그러한 벽을 만든 것은 누구인가? 그리고 개인을 구속하는 전체로서의 그 벽을 우리는 과연 허물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떠한 형식의 벽으로부터 진정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알란 파커의 영화에서 거의 인간 본성에 가까운 감정을 드러낸 죄를 지은 주인공 핑크에게 내려진 형벌이 벽을 부수는 것(destroy the wall)이었다. 그렇게 해서, 벽은 무너진다. 벽이 부서지는 것은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의 파괴를 의미한다. 그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파괴이며, 외부 세계의 파괴이다. 벽을 부수는 벌을 내린 사회도 역시 붕괴된다. 하지만,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묘한 암시를 담고 있기도 하다. 벽이 부서진 폐허 속에서 아이들은 다시 벽돌을 주워 모은다.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아이들은 다시 또 그들만의 새로운 벽을 쌓을 것인가? 과연 그 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는 진정 어떤 형태의 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영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던져준 화두들이다.

7) Video Program

세미나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비디오 프로그램은 간디학교와 학교 숲가꾸기의 일환으로 학교담장을 허물고 아이들이 숲과 대화하고 숲을 가꾸는 현장을 다룬 영상을 다루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동아리 연합회에 의해 운영되는 하이틴 르포 우리학교 우리영상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01.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희망의 선택 간디학교 II'
02. 하이틴 르포/우리학교 우리영상 www.ssro.net (청소년동아리연합회)
03. KBS 환경스페셜, 숲 학교로 가다. 서울 성내 초등학교 vs 물야초등학교'

8) Symposium Program

대안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영등포에 위치한 하자센터에서 제1회 대안교육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심포지엄은 스튜디오의 이론적 고찰을 제공하는 기회였고 다양한 대안교육 활동가들의 견해와 대안교육 대안공간의 미래를 향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제1차 대안교육 심포지엄>

“탈학교 십대를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열린 공간, 움직이는 학습 : 사는 곳 어디나 배움터입니다.

- 2001년 11월 1일(목) 오전 10시 30분-5시 30분
- 위치 : 영등포 하자센터 999클럽 외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번지 대안교육센터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내)
- (<http://www.haja.net/activelearning>)

< 프로그램 >

1부. 도시형 대안학교로 가는 길

1. 왜 도시형 대안 학교인가 : 한국 사회 대안 교육의 발자취와 현주소/양희규 (간디학교 이사장)
2. 우리가 꿈꾸는 학교 : 벽이 없는 학교

2.1 토론

- ▣ 문지원 (하자 작업장 학교 학생)
- ▣ 이성은 (대안교육센터 네트워크 실험교실 학생)
- ▣ 정이비 (하자 작업장 학교 학부모)
- ▣ 김상봉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모임 사무처장, 탈학교 십대 학부모)
- ▣ 조한혜정 (대안교육센터장)

2.2.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의 구상

- ▣ 김찬호 (대안교육센터 부센터장)

2부. 학교 바깥으로 나아가는 학습을 위하여

1. 비공식 청소년 교육의 대두와 원리, 그리고 21세기적 전망
- 탈학교 10대의 자기 주도적 학습과 학습 자원 네트워크 -

Celia Greenwood (Director, WAC Performing Arts and Media College)

2. 분과 토론 : 새로운 '학교' 만들기

- ▣ 제 1 분과 : 새로운 학습의 원리
발표 1 : 자기 주도적 학습과 실행 원리 안이환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 발표 2 : 학습 자원 네트워크와 교사의 역할 김경옥 (대안교육센터 교육상담팀장)
- 논 평 : 나운경 (연세대 강사, 교육학 박사), 박복선 (우리교육 편집장)
- ▣ 제 2 분과 : 지역에서 학교 만들기의 현황과 과제 사회 : 전효관 (하자센터 부소장)

- 발표 1: 지역에서 학교 만들기: 설립과 후원의 문제
황인국 (도시속 작은학교 이사)
- 발표 2: 지역 네트워크의 현황: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사례
천성호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대표)
- 발표 3: 학교 안팎을 잇는 청소년 교육: 수서 디
딤돌 학교와 강남공고의 사례
조숙현 (수서 디딤돌 학교 상담팀장),
김진우 (강남공고 생활지도부장)
- 논 평: 박창남 (청소년개발원), 이한 (학력폐지
연대), 황석연 (즐거움 학교 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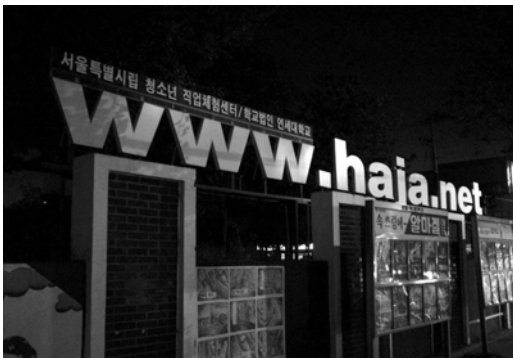


그림 6. 하자센터와 제1회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심포지엄
알림 현수막

9) Project Process

후반부의 설계스튜디오는 대안공간으로서의 다양한 대안학교를 제안하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서로 다른 5개의 소 테마로 구분된 대안학교의 구체적인 설계과정을 6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대상설정단계-조사단계-해석단계-조작단계-물성화단계-공간화단계의 6단계를 설계의 프로세스로 정한 뒤 이 단계에 따라 전반부의 학교읽기와

해석, 그리고 답사를 연계할 수 있는 개인작업을 유도하였다.

01. 대상설정단계(Target&Goal Planning)
02. 조사단계(Investigation)
03. 해석단계(Interpretation)
04. 조작단계(Manipulation)
05. 물성화단계(Materialization)
- 06.공간화단계(Spatial Configuration)

- 우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할 것
- 학교와 교육공간의 해석을 통한 벽과 벽돌의 디자인에서 시작
- 운동장없는 학교/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하는 학교/24시간 학교/이동하는 학교/1인학교의 대안공간에 대한 자신의 시각적 틀과 그 시각을 통해 읽혀진 것들을 추스려 나갈 방법론적 틀을 정립할 것 (대상설정단계)
- 다만 5개의 조금씩 다른 대안학교 공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실체를 아주 미시적인 차원까지 파고들어 그 안에 담겨진 행위의 주체, 주체들간의 관계성, 그 관계를 담고 있는 물리적 환경, 그 환경 내에서만 일어나는 행위들을 우선 관찰할 것 (조사단계)
- 학교공간과 그 안에 담겨진 행위와 행위의 주체들간의 관계성에서 내가 주목할 것을 명확히 설정할 것 (해석단계)
- 주목의 대상에 대한 조작의 방법을 탐구할 것 (조작단계)
- 대상을 구성하는 관계에 주목하고 그 관계의 변형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삽입할 수 있는 틈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대상을 구성하는 특정한 부분을 통해 속성을 드러내고 그 속성의 변형을 통해 대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는 대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간 관계의 틀에 개입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설정된 관계를 변형하거나 조작하여 눈에 보이는 가시적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주체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통해 새로운 대안공간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물리적 공간을 결정짓는 압축된 힘으로서의 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해석과 조작을 통해 디자인을 공간을 통한, 공간의 변혁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제안으로 가능하게 한다. (물성화 및 공간화 단계)

3. 맺는 글

대안공간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봇물 터지듯이 분출되는 상황에 건축디자인이 대응하는 속도와 자세는 매우 미약하고 수동적이다. 대안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공간의 형태로 담겨길 원하는 데, 그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건축가들의 귀기울임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디자인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와 그 변화 속에 담긴 사회적 목소리를 들어야만 한다. 그 목소리에는 단절된 제도로서의 공간이 아닌, 우리들의 다양한 삶의 가치와 태도가 살아 숨쉬며, 모든 가치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열린 공간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 미래의 희망을 건지는 대안적 삶을 담는 대안공간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학교에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싹트는 곳이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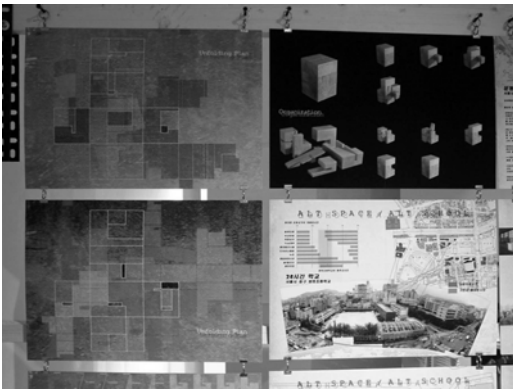


그림 7. 스튜디오 작업 최종 전시물